

수학보고서 (1 차)

- 소속 : 상경대학 국제통상학부(학과) 국제통상전공
- 성명 : 김 xx 지
- 학번 : 2111xxxx
- 핸드폰 : +31 062 092 7909
- 파견연도 : 2012-2013
- 교류대학 : Hogeschool Van Amsterdam (교환학생)

1. 파견 학교(위치 및 교통편) 소개, 정착 시까지 소요비용

학교는 기숙사에서는 걸어서 1 분거리, 메트로역까지는 5 분거리에 위치해있어서 교통이 편리합니다. 암스테르담 중앙역까지는 메트로로 15 분정도 걸립니다. 대부분 필요한 것들은 학교 주변에서 다 구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식재료를 살 수 있는 슈퍼도 근처에 많이 있고, 안경점, 문구점, 옷가게 등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근처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학기가 시작할 때는 책 값이 좀 듭니다. 하지만 책을 안 쓰는 수업도 있고 중고로 살 수 있는 학교 내 학생회 같은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구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데 보통 책 한 권에 10~20 유로 정도 합니다.

생활비는 아껴 쓴다면 30 만원부터~50 만원까지 자기 생활패턴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2. 기숙사 및 도서관 등 학교 부대시설 소개(보증금 여부, 납부주기(매월/6 개월/1 년 등), 기숙사내 컴퓨터 등 전자제품 사용법 등)

기숙사는 2 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처음에 랜덤으로 배정받습니다. 처음 기숙사를 신청할 때 한달 방값 범위를 선택하는 게 있는데 그걸 고려해서 배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50 유로 -400 유로 정도입니다. 보증금은 한달 방값으로, 첫 달에 지불할 때 한달 방값을 더 내야하고, 마지막 달에 돌려 준다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므로 학기 끝나고 한 두 달 지나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납부주기는 매월 지불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 또는 온라인으로 지불 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 내에서는 랜선을 연결해서

노트북을 쓸 수도 있지만 대부분 공유기를 가져와서 꼽아 와이파이 존을 만들어서 사용한답니다. 전자제품 코드는 같으므로 따로 컨버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가지 불편한 점은 전구 불빛이 주황색이고 굉장히 약해서 방이 전반적으로 어둡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전구를 사서 택배로 받아 갈아 끼웠는데, 오실 때 흰색 전구를 준비해 오셔서 같거나 여기서 택배 받을 일이 있으면 받으셔서 바꾸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은 플랫형식으로 총 룸메이트 3 명이 생활합니다. 각 방 3 개에 부엌, 화장실을 함께 쓰는 형태입니다. 빨래는 지하 1 층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제는 따로 넣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는 단과 별로 따로 떨어져 위치에 있는데, 저희가 다니는 학교는 Business economics and management 단과 대 입니다. 0 층에는 도서관이 있는데, 대부분 전공관련 책들이 있고 컴퓨터도 쓸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도서관은 조용한 분위기가 아닌 자유롭게 앉아서 있는 분위기 이므로 시험공부를 위해서는 위 층에 있는 그룹 학습 실을 사용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프린트는 카드에 충전을 해서 사용해야 하고, 학교 내부 카페에서 커피나 머핀 등 간단하게 끼니를 때 올 수 있습니다.

3. 교육과정 및 수업내용

학교 수업은 대부분 상경대학에서 들을 수 있는 수업입니다. 그 외에도 교환학생을 위한 영어회화수업, 또는 스페인어,독일어 등 다른 언어 코스도 들을 수 있습니다. 수업은 일주일에 한번 있고 2 시간 내외로 진행됩니다. 수업은 대부분이 교환학생들로 이루어져 있고 수업방식은 교수님과 학생들의 토론형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이 많습니다. 교수님께서 질문하시면 학생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거리낌 없이 자신의 의견을 내놓습니다.

아시다시피 ECTS 가 높은 수업일수록 그룹활동, 프레젠테이션이 많고 조금 벅찰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얻을 수 있는 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첫 학기에는 ECTS 가 적은 수업위주로 들었고 둘째 학기는 높은 것 위주로 듣고 있는 중이므로 다른 학생들과의 교류 역시 많습니다. 또한 저는 첫 학기는 수업을 직접 골라서 들었는데 두번째 학기는 마케팅에 관련된 Minor 코스라고 전공을 위해 여러 가지 수업이 이미 짜여진 코스를 선택해서 듣고 있는 중인데, 알고 보니 이 코스는 네덜란드 정규학생들이 듣는 전공 수업이었습니다. 4 학년 수업이기도 하고 마케팅수업이라서 듣기에 어렵고 벅차기도 하지만 그만큼 배울 점도 많고 정규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좀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영어실력이 부족하면 상대적으로 수업참여도가 떨어지고 그룹활동

때에 힘들 수 있으므로 오시기전에 열심히 준비를 해 오시거나 오셔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면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4. 과외활동 소개

처음에 오시면 ISN 이라고 International student organization 인데 그곳에서 주최하는 일주일간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무조건 참여하셔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하셔서 다른 학생들도 많이 만나시길 추천합니다. 그 이후로도 ISN 에서 매주 파티도 열고, 한 달에 한 두 번씩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로 여행을 짜는데 단체로 가기 때문에 비용도 상대적으로 싸고 여러 학생들을 만날 수 있으므로, 그런 것들을 많이 참여하시면 좋은 경험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5. 교우관계 소개

처음에 왔을 때 한국에 이미 교환학생도 갔다 오고 또 관심이 있는 몇몇 학생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기도 했고, 수업시간에 같은 그룹 멤버들이랑도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자기하기 나름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수업시간을 통해서는 그룹 외 다른 학생들과 친해지지 못했는데 대부분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 수업만 듣고 끝나면 각자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때문에 교외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어울리는 게 많은 친구를 만드는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6. 문화적 차이

일반적으로 네덜란드 사람들이 Direct 하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남들 앞에서 말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고 당당합니다. 수업시간에 학생들과 교수님 사이 관계도 한국과는 좀 다릅니다. 좀 더 동등한 관계로 생각 되어 지는데, 서로의 의견, 주장 과 하는 모든 행동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네덜란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검소하다고 생각됩니다. 밖에서 사먹는 음식은 가격이 비싸서 그런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가 고프면 미리 집에서 가져온 음식들 로(과자, 음료수, 빵과 치즈 등) 끼니를 때우고 지나가다 보면 흔히들 길거리에서 집에서 가져온 찜 발린 빵 등을 싸와 먹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더치 사람들의 일반 적으로 감자, 야채, 소시지나 빵 등을 주식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는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통수단 중 하나인데, 자전거 이용률이 전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딜 가나 자전거 전용도로가 마련되어 있어서 자전거 하나만 있으면 암스테르담 전체를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보편적인 교통 수단입니다.

7.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막연히 교환학생에 대한 기대와 상상만 하신다면 저는 교환학생생활도 한국에서의 학교생활과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하교하는 일반적인 생활패턴은 크게 다르지 않고 그 외의 시간들은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에서의 수업시간에는 영어로 모두 진행이 되고 과제 역시 영어 리포트, 에세이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명심할 것은, 무조건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 영어가 많이 는다는 생각보다는 이 곳에서의 생활은 영어를 늘 수 있게 만들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막연한 기대보다는 이 곳에 와서 자기 스스로 그 환경에 더 노출시켜서 자기계발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환학생을 결심하신다면 6 개월보다는 1 년을 선택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영어 이외에도 얻은 것이 많습니다. 넓어진 시야,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과 새로운 경험들로 이 곳에 오지 않았다면 쉽게 경험하지 못했을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교환학생을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꼭 한번쯤은 경험해 봐야 할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